

EDISC를 활용한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구강 증진행위에서 의식행동과 무의식행동의 연관성

김정술†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 Behavior and Unconscious Behavior Regard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Past and Present Using EDISC

Jung-Sool Kim†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relations between conscious behavior and unconscious behavior sides in the past oral habits and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according to team role styles of EDISC behavior type. A DISC behavior types describes general life environment of personnel and it was divided 4 behaviors. And,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scious team role styles and conscious team role styles using extended EDISC about the past oral habits and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As a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past oral habits and present oral promotion behavio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r=0.655$, $p=0.000$),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rofile I and profile II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r=0.205$, $p=0.000$). When dependance variable were past oral behavior habits, results of profile I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between supporter and reformer, and results of profile II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in case that between promoter and relater, communicator, implementor, respectively, and between implementor and relater, communicator, coordinator, respectively. When dependance variable were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results of profile I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in case that between promoter and supporter, persuader, analyzer, respectively, results of profile II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in case that between promoter and relater, communicator, implementor respectively and between implementor and relater, communicator, coordinator, respectively. We concluded that the people who active, rational and subjectivists better well performed i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an the people who likes coordinate, and communicate in past or present, whenever.

Key words : Behavioral analysis, EDISC, Oral health promotion, Team role style

† Correspondence to: Kim JS,
Tel: +82-52-270-0291
Fax: +82-52-270-0239
E-mail: jskim@ch.ac.kr

Received June 3, 2015
Revised June 26, 2015
Accepted July 8, 2015

* 본 연구는 2014년도 춘해보건대학교 교내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2014.

I. 서론

EDISC(Extended DISC)는 DISC행동 유형분석(Behavioral analysis)의 확장판[1][2]으로 주도형(Domi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형(Steadiness), 신중성(Compliance)의 약어로서 인간의 행동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도구이다[3]. 여기서 중요한 점은 D.I.S.C 네 가지 행동유형은 어떤 유형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나 자극에 따라 한, 두 가지 정도의 주도적인 행동유형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EDISC 진단법은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유형(프로파일 I)과 가장 편안한 행동유형인 무의식적인 행동유형(프로파일 II)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1][2]. EDISC 행동유형분석의 진단목적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스킬(Skill)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워크향상 및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 네 가지 행동특징 중 주도형은 경쟁적이며, 적극적이고, 의사결정이 빠르고, 결과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으로 인내심이 부족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사교형은 대화를 즐기며, 사람 지향적이고 정열적인 유형이지만, 즉흥적이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다. 안정형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인내심이 많고 느긋하게 행동하지만, 너무 느리고 현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며, 신중형은 정확하며 논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하지만 매우 비판적이고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4].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EDISC 행동유형과 관련된 Team Role Style이 과거의 구강관련 습관과 현재의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어떠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기존의 DISC행동유형분석을 활용한 연구[5][6][7][8]는 대부분 일반적인 DISC의 4가지 유형(D형, I형, S형, C형)에 따라 분류된 결과를 가지고 활용되어 단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EDISC에서 제공하는 10가지 Team Role Style에 따라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의식적인 성향과 무의식적인 성향으로 분류된 결과를 가지고 활용되기 때문에 더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DISC 행동 유형을 통한 조직 내에서의 만족도, 리더십과의 관계와 업무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분석된 많은 연구결과[9][10][11][12]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건강관련 행태[13]나 구강건강증진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행동유형을 분석 연구한

사례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14]. EDISC의 Team Role Style에는 전문가(Analyzer), 수행자(Implementor), 개혁가(Reformer), 협력자(Coordinator), 대화자(Communicator), 개발자(Developer), 활동가(Promoter), 지원자(Supporter), 관계형성자(Relater), 설득자(Persuader) 등 10개의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통하여 행동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구강보건 교육시 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활용방안의 기대효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5].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지식차원의 보건교육의 효과를 가능해볼 수 있고, 미리 그 대책 안 들을 준비하여 향후, 개인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관련 행위들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보여 진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구강건강증진 행위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울산시에 위치하는 C대학의 치위생과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4년 3월 2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 본 조사 취지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최종 303명의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적인 통계량, 신뢰성 분석(Cronbach α)을 통한 문항분석과 상관분석 및 이원분산 분석(Twoway-ANOVA)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이디스크코리아(주)에 의뢰를 하여 이 회사에서 제작된 EDISC 행동분석 검사지(24문항)결과[1]와 5점 척도의 7문항으로 구성된 구강관련 과거습관[16]과 10문항으로 구성된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17]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과거습관의 신뢰성계수(Cronbach α)는 0.918로 나타났고,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의 신뢰성계수(Cronbach α)는 0.63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은 모두 0.5이상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로는 303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7명

으로 2.3%, 여자는 296명 97.7%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특성상 대부분, 여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 남학생의 비율이 극히 작게 나타났다. 평균 나이는 21.5세였으며, 본 연구대상자의 EDISC 응답결과는 의식적 행동인 프로파일(Profile) I에서는 초기에 I형이 162명, 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S형이 33명, 11%, I/S형이 24명, 8%, C/S형이 18명, 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무의식 행동유형인 Profile II에서는 I/S/C형이 84명, 2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S/C/I형이 42명, 14%, C/S/I형이 33명, 11%, S/I/C형이 27명, 9%, I/D/S형이 24명, 8%, I/C/S형이 18명, 6%, I/S형이 15명, 5%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itial EDISC response results(N=303)

Classification		Frequency	%
Sex	Men	7	2.3
	Women	296	97.7
	Total	303	100
Profile I	D	9	3
	I	162	54
	I/S	24	8
	I/D	6	2
	S	33	11
	S/C	9	3
	C	6	2
	C/S	18	6
	C/I	9	3
	S/I	9	3
	I/C	6	2
	D/C	6	2
	D/I	6	2
	Sum	303	100
Profile II	I/D	3	1
	I/D/S	24	8
	I/S	15	5
	I/S/C	84	28
	I/C/S	18	6
	I/S/D	9	3
	S/I	6	2
	S/I/D	3	1
	S/I/C	27	9
	S/C	9	3
	S/C/I	42	14
	C/S/I	33	11
	C/S/D	9	3
	D/I/S	6	2
D/I/C	6	2	
D/C/I	6	2	
D/C/S	3	1	

2. 각 Profile에 따른 Team Role Style 분포

<Table 1>의 결과를 EDISC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Team Role Styles로 분석된 응답결과에서는 의식행동을 의미하는 Profile I에서는 개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Team Role Style이 존재하였으며, 설득자가 162명,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자와 관계형성자가 각각 33명, 11%, 협력자가 27명, 9%, 대화자가 12명, 4%의 순으로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자가 3명, 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식 행동을 의미하는 Profile II에서는 5개의 Team Role Style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형성자가 147명, 49%로 가장 많았고, 협력자가 93명, 31%, 활동가가 39명, 13%, 대화자가 18명, 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행자가 6명, 2%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team role styles for Profile I, II(N=303)

Classification		Frequency	%
Profile I	Supporter	33	11
	Persuader	162	54
	Analyzer	6	2
	Reformer	9	3
	Promoter	9	3
	Relater	33	11
	Coordinator	27	9
	Communicator	12	4
	Implementor	3	1
	Sum	303	100
Profile II	Promoter	39	13
	Relater	147	49
	Communicator	18	6
	Coordinator	93	31
Implementor	6	2	

3. 과거구강습관과 현재구강증진행위에 대한 profile별 Team Role Style 기술통계량

과거구강습관에 대한 각 Team Role Styles에 대한 평균점수는 Profile I에서는 개혁가형이 평균 33.67로, 표준편차는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행자형은 평균 33.00, 표준편차 0.00, 활동가형은 32.67, 표준편차 1.80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형이 평균 26.00, 표준편차 3.29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총

원 303에 대한 평균값은 29.73, 표준편차는 3.24로 나타났다. Profile II에서는 수행자형이 평균 37.50, 표준편차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동가형은 평균 30.15, 표준편차 4.09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화자형이 평균 27.00, 표준편차 2.97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총원 303에 대한 평균값은 30.32, 표준편차는 3.57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eam role styles for past oral behavior custom(N=303)

Classification	Mean	SD
Past oral behavior custom	28,67	4,35
Supporter	27,55	4,44
Persuader	28,52	4,32
Analyzer	26,00	3,29
Reformer	33,67	6,14
Profile I		
Promoter	32,67	1,80
Relater	28,36	4,92
Coordinator	29,33	2,35
Communicator	28,50	1,88
Implementor	33,00	0,00
Average	29,73	3,24
Profile II		
Promoter	30,15	4,09
Relater	27,88	4,59
Communicator	27,00	2,97
Coordinator	29,06	3,46
Implementor	37,50	2,74
Average	30,32	3,57

그리고 현재구강증진행위에 대한 각 Team Role Styles에 대한 평균점수는 Profile I에서는 활동가(Promotor)형은 평균 46.33로, 표준편차는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혁가형은 평균 45.00, 표준편차 4.82, 대화자형은 41.25, 표준편차 1.86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원자형이 평균 38.63, 표준편차 7.42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총원 303에 대한 평균값은 40.63, 표준편차는 3.87로 나타났다. Profile II에서는 수행자형이 평균 47.50, 표준편차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화자형이 평균 37.50, 표준편차 4.71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총원 303에 대한 평균값은 41.18, 표준편차는 4.82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eam role styles for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N=303)

Classification	Mean	SD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39,57	5,50
Supporter	38,63	7,42
Persuader	38,93	5,46
Analyzer	35,00	2,19
Reformer	45,00	4,82
Profile I		
Promoter	46,33	6,50
Relater	40,09	4,03
Coordinator	40,44	2,55
Communicator	41,25	1,86
Implementor	40,00	0,00
Average	40,63	3,87
Profile II		
Promoter	42,69	5,27
Relater	38,75	5,70
Communicator	37,50	4,71
Coordinator	39,45	4,59
Implementor	47,50	3,83
Average	41,18	4,82

4. 과거구강습관과 현재구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

과거구강습관과 현재구강증진행위와의 상관분석결과, 과거구강습관은 현재구강증진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r=0.655$, $p=0.000$)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5>.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ast oral custom and present oral promotion behavior

		Past	Present
Past	Pearson r	1	.655**
	p		.000
	N	303	303
Present	Pearson r	.655**	1
	p	.000	
	N	303	303

** . p < 0.01

각 Profile I과 Profile II의 상관분석결과 역시, Profile I과 Profile II는 약한 상관관계($r=0.205$, $p=0.000$)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Table 6>.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rofile I and profile II

		Profile I	Profile II
Spearman's rho	Profile I	r	1,000
		p	.205**
		N	303
	Profile II	r	.205**
		p	1,000
		N	303

** . p < 0,01

5. Profile I, II에 따른 과거구강습관

과거구강습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 II의 이원분산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각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5), 또한 상호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Table 7>.

<Table 7> Result for profile I, II to past oral behavior custom

		df	Mean square	F	P
Past oral behavior custom	Profile I	8	33,47	2,22	0,026
	Profile II	4	114,53	7,58	0,000
	Profile I * Profile II	5	63,16	4,18	0,001
	Adj. R square		0,196		

6. Profile I에 따른 과거구강습관

과거구강습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의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결과에서 지원자와 개혁가(p=0.028)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8>.

<Table 8> Multiple compare by Scheffe method for profile I

Dependence variable	(I) Type	(J) Type	Mean difference (I-J)	S,E	P	95% Confidence duration	
						Low limit	High limit
Past oral behavior custom	Supporter	Reformer	-6,1212	1,46	0,028	-11,9258	-0,3166

*. Mean difference(I-J) < 0,05

7. Profile II에 따른 과거구강습관

과거구강습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I의 분산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대한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 결과는, 활동가와 관계형성자(p=0.002), 활동가와 대화자(p=0.032) 사이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행자와 활동가 (p=0.006), 수행자와 관계형성자(p=0.000), 수행자와 대화자 (p=0.000), 수행자와 협력자(p=0.000)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8. Profile I, II에 따른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 II의 이원분산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또한 상호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5)<Table 10>.

<Table 9> Multiple compare by Scheffe method for profile II

Dependence variable	(I) Type	(J) Type	Mean difference (I-J)	S,E	P	95% Confidence duration	
						Low limit	High limit
Past oral behavior custom	Promoter	Relater	3,0391	0,72	0,002	0,7980	5,2802
		Communicator	3,9167	1,19	0,032	0,2129	7,6204
	Implementor	Promoter	6,5833	1,71	0,006	1,2690	11,8977
		Relater	9,6224	1,62	0,000	4,6029	14,6420
		Communicator	10,5000	1,88	0,000	4,6784	16,3216
		Coordinator	8,5000	1,64	0,000	3,4185	13,5815

*. Mean difference(I-J) < 0,05

<Table 10> Result for profile I to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df	Mean square	F	P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Profile I	8	60.75	2.61	0.009
	Profile II	4	142.58	6.12	0.000
	Profile I * Profile II	5	170.83	7.34	0.000
	Adj. R square			0.225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에 대한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활동가와 지원자(p=0.024), 활동가와 설득자(p=0.012), 활동가와 전문가

(p=0.013)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11>

<Table 11> Multiple compare by Scheffe method for profile I

Dependence variable	(I) Type	(J) Type	Mean difference (I-J)	S.E	P	95% Confidence duration	
						Low limit	High limit
Present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Promoter	Supporter	7.6970	1.81	0.024	0.4889	14.9050
		Persuader	7.4074	1.65	0.012	0.8431	13.9718
		Analyzer	11.3333	2.54	0.013	1.2310	21.4357

*. Mean difference(I-J) < 0.05

9. Profile II 에 따른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I에 대한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 결과는, 활동가와 관계형성자(p=0.000), 활동가와 대화자(p=0.006, 활동가와 협력자(p=0.001), 그리고 수행자와 관계형성자(p=0.001), 수행자와 대

화자(p=0.002), 수행자와 협력자(p=0.003)사이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12>

<Table 12> Multiple compare by Scheffe method for profile II

Dependence variable	(I) Type	(J) Type	Mean difference (I-J)	S.E	P	95% Confidence duration	
						Low limit	High limit
Present oral behavior custom	Promoter	Relator	4.7449	0.89	0.000	1.9619	7.5279
		Communicator	5.7000	1.48	0.006	1.1007	10.2993
		Coordinator	4.3000	0.95	0.001	1.3487	7.2513
	Implementor	Relator	8.7449	2.01	0.001	2.5117	14.9781
		Communicator	9.7000	2.33	0.002	2.4708	16.9292
		Coordinator	8.3000	2.03	0.003	1.9899	14.6101

*. Mean difference(I-J) < 0.05

IV. 고찰

EDISC 행동유형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구강건강증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통제가 가능한 일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일부지역의 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전체 성인이나 성별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의식적, 무의식적인 행동경향이 반영된 EDISC의 Team Role Style과 과거구강관련 습관이나 현재구강건강증진 행위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과거의 치과진료는 주로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이나 개인의 치과진료에 관한 인식에 기인한데 반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는 치과공포와 같은 환자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18][19]. 특히 본 연구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개방적이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중들과의 관계를 위해 구강건강증진행위에 관심을 가진다는 일반론적인 관심은 제외하고, 무의식적인 성향이 반영된 현재의 사회생활 관계개념이 정립된 EDISC 행동유형에 따른 구강건강증진 행위들의 차이를 알고 싶었다. 본 연구결과, EDISC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Team Role Styles로 분석된 응답결과에서는 의식행동을 의미하는 Profile I에서는 개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Team Role Style이 존재하였으며, 설득자가 162명,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자가 3명, 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설득자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좋은 쪽으로 보는 아주 개방적이며 긍정적인 사람이며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요즘 시대의 대다수 젊은이들처럼 분석을 싫어하며 창의적인 일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여겨진다. 무의식 행동을 의미하는 Profile II에서는 5개의 Team Role Style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형성자가 147명, 49%로 가장 많았고, 수행자가 6명, 2%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자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상냥하고 친밀한 대화자이다. 이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교환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성향으로 무의식으로는 이러한 정서가 젊은 여학생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진 결과로 보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행자적 성향 즉, 문제해결을 즐기며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적은 것도 현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보여진다. 과거구강습관에 대한 각 Team Role Styles에 대한 평균점수는 Profile I

에서는 개혁가형이 평균 33.67로, 표준편차는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형이 평균 26.00, 표준편차 3.29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Profile II에서는 수행자형이 평균 37.50, 표준편차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화자형이 평균 27.00, 표준편차 2.97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과거의 구강관련 습관에 있어서 의식적으로는 개혁가 즉,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며 어떠한 질문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자신의 의견은 스스로 없이 말하는 유형으로 연구대상자들이 과거에 구강관련 칫솔질이나 예방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 무의식 내면에서도 문제해결을 즐기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느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칫솔질 관련 행위들을 실천해 온 사람들이 많고, 대화자형이 적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구강건강관련 행위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구강증진행위에 대한 각 Team Role Styles에 대한 평균점수는 Profile I에서는 활동가(Promotor)형이 평균 46.33, 표준편차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원자형이 평균 38.63, 표준편차 7.42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Profile II에서는 수행자형이 평균 47.50, 표준편차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화자형이 평균 37.50, 표준편차 4.71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현재의 구강증진행위에 대해서는 의식적 측면에서는 활동가형이 창의적이며 꿈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설계자의 유형으로 현재 구강증진행위가 중년이나 노년이 되었을 때도 구강건강을 유지해주리라고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며 이는 지원자형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원인이라고 해석이 된다. 무의식적 내면에서도 수행자형 즉, 이성적이며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유형의 점수가 높고 대화자형의 점수가 낮은 것도 현재 구강건강증진의 이점을 충분히 알아 자신이 꾸준히 증진행위를 실천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관점에서 현재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구강건강관련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는 편의(Bios)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여진다. 과거구강습관과 현재구강증진행위와의 상관분석결과, 과거구강습관은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r=0.655$, $p=0.000$)가 존재하였으며 각 Profile I과 Profile II의 상관분석결과 역시, Profile I과 Profile II는 약한 상관관계($r=0.205$, $p=0.000$)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이는 현재 의식적인 행동결과도 결국, 내면의 무의식

V. 결론

적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과거 구강행동 습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의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결과에서 지원자와 개혁가($p=0.028$)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성향이 뚜렷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Profile II에 대한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 결과는, 활동가와 관계형성자($p=0.002$), 활동가와 대화자($p=0.032$) 사이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신이 본능적, 직감적 능력을 믿는 활동가형과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형성자나 사교적인 대화자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수행자와 활동가($p=0.006$), 수행자와 관계형성자($p=0.000$), 수행자와 대화자($p=0.000$), 수행자와 협력자($p=0.000$)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에 대한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활동가와 지원자($p=0.024$), 활동가와 설득자($p=0.012$), 활동가와 전문가($p=0.013$)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재의 구강건강관련 행위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활동가형이 다른 형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Profile II에 대한 Scheffe방법의 세부적인 다중비교 결과는, 활동가와 관계형성자($p=0.000$), 활동가와 대화자($p=0.006$), 활동가와 협력자($p=0.001$), 그리고 수행자와 관계형성자($p=0.001$), 수행자와 대화자($p=0.002$), 수행자와 협력자($p=0.003$) 사이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무의식적인 성향에서도 자신의 성향이 뚜렷한 활동가형과 개성을 중시하는 이성적인 수행자형의 사람들의 성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과거의 습관에서나 현재행위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뚜렷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성향을 가진 사람들 즉 활동가형이나 수행자 형들이 남과 더불어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즉, 관계형성자, 대화자, 협력자들 보다 구강건강 증진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는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성격이 외향성인 사람들이 구강건강증진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 [20]와도 동일한 맥락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MBTI 유형검사와 같은 보다 더 내면적인 접근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시도를 통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일 대학의 치위생과 전체학년 303명을 대상으로 EDISC 행동유형분석과 과거와 현재의 구강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과거구강습관에 대한 각 Team Role Styles에 대한 평균점수는 Profile I에서는 개혁가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Profile II에서는 수행자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화자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구강증진행위에 대한 각 Team Role Styles에 대한 평균점수는 Profile I에서는 활동가(Promotor)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원자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Profile II에서는 수행자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화자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셋째, 과거구강습관과 현재구강증진행위와의 상관분석결과, 과거구강습관은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r=0.655$, $p=0.000$)가 존재하였으며 각 Profile I과 Profile II의 상관분석결과 역시, Profile I과 Profile II는 약한 상관관계($r=0.205$, $p=0.000$)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넷째, 과거 구강행동 습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의 다중비교결과에서 지원자와 개혁가($p=0.028$)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Profile II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는, 활동가와 관계형성자($p=0.002$), 활동가와 대화자($p=0.032$), 수행자와 활동가($p=0.006$), 수행자와 관계형성자($p=0.000$), 수행자와 대화자($p=0.000$), 수행자와 협력자($p=0.000$) 사이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현재구강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file I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에서는, 활동가와 지원자($p=0.024$), 활동가와 설득자($p=0.012$), 활동가와 전문가($p=0.013$) 사이에서 Profile II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는, 활동가와 관계형성자($p=0.000$), 활동가와 대화자($p=0.006$), 활동가와 협력자($p=0.001$), 그리고 수행자와 관계형성자($p=0.001$), 수행자와 대화자($p=0.002$), 수행자와 협력자($p=0.003$) 사이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섯째, 최종 분석 결과,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적인 철학을 가지거나 활동적인 사람들이 남과 더불어 일하기를 좋아하며 타협적인 사람들보다 구강건강 증진행위에 더 적극적이며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1. EDISC Korea: <http://www.ediskorea.com/~main.html>, 2014.
2. Behavior Analysis Manual: EDISC Korea Company, pp.3-22, 2014.
3. Son M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DiSC behavior typ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3.
4. Wang X: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iSC Behavior Patterns for the Strategic Uses of IS and the Business Process Innovation. Doctor's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Kyungsan, 2008.
5. Lee YJ: Analysis Consumer Preference for NLP primary senses and DISC behavioral pattern on smart phones-Focused on iPhone and Galaxy.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41:34-41, 2012.
6. Kim HJ: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an Employee's Behavioral Pattern and his or her Performance in Security Firms: focused on D security corpor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7. Choi IS: An Analysis on Teacher's Behavior in Mathematics Instruction From 'Teaching with Variation' of Point of View. Docto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0.
8. Kim MH: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Level and the Parenting Styles Related to Married Couple's DISC Behavioral Model. Doctor's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2003.
9. Yoo HJ: A Study on Differences of Education Satisfaction by DiSC Behavior Pattern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5.
10. Bang KH, Jang HK, Jung YM: Relation between the DISC Behavior Coping Type and Level of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Employee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5(3):17-32, 2010.
11. Park HY: The Effect of Education Satisfaction by DiSC Behavior Pattern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2.
12. Kim KB: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DiSC Behavior Pattern and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13. Im WS: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Health conditions Related to DISC Behavior Characteristic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09.
14. Lee HY, Lee YH: Analysis of Related Factors for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ISC Behavioral Style in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s 2(1):54-63, 2014.
15. Back HM: Youth Leader's Relationship between DISC Behavioral Type and the Youth Group Cohesivenes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6.
16. Lee GJ: Factor Affecting Activities for Oral Health Promotion. Doctor's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Kyungsan, 2010.
17. Lee HY: Study on Relation Factors of Oral Health Behaviors: Based on Health Promotion Model.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1.
18. Nam HJ: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Depending on the DISC Behavior Pattern.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09.
19. Kwak YJ: The Effects of Supervisor-Subordinate DiSC Behavior Tendencies on Subordinat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2011.
20. Kim JS: A Study On the Health Promotion Life Style and Related Factors of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 Soc. Hygienic Sciences 14(2):1-9, 2008.